<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석유화학의 위상과 신증설"

통상산업부가 「산업발전의 장기비젼」을 확정 · 공표했다.
2000년 및 2005년 우리나라 산업의 장기발전 목표를 제시,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95년초부터 20여개 산업분야별로 장기발전방향을 집약토록 해 이를 토대로 종합한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된 「산업발전의 장기비젼」은 한마디로 한국의 산업을 첨단기술산업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장기비젼은 5월17일 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돼 확정,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단잣대로 통용될 것이 확실하다.
즉, 신증설이나 기술도입, 합작투자, 해외진출 등 산업상의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는 문제들은, 법적 강제력이나 규제근거에 상관없이, 행정조치라는 미명아래 「산업발전의 장기비젼」에 저촉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산업계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한국 화학산업은 신소재, Chemicals 및 생물산업을 위주로 고도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Chemicals는 96년 생산액이 13조8000억원(경상가격 기준)에서 2000년 20조600억원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32조3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신소재는 96년 생산액이 2조4540억원에서 2000년 6조9540억원, 2005년 17조8210억원으로 성장하고, 생물산업은 96년 5120억원에서 2000년 3조1500억원, 2005년 16조원으로 급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은 Chemicals가 1996 ~ 2000년 10.5%, 2000 ~ 2005년 9.4%, 신소재는 29.8%, 20.7%, 생물산업은 57.6%, 38.4%로 전망, 신소재 및 생물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매우 높게 잡혀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젼이고 실질적인 성장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의 잣대로써 역할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Chemicals, 신소재, 생물산업이 성장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계의 성장전략이나 기여도가 장기비젼과 맞아 떨어질 경우 세제 및 금융상의 호혜조치를 등에 업고 손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족 및 세제혜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반면, 석유화학은 성숙산업으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해외투자를 통해 저가제품 및 부품 · 원자재를 조달받는 이원적 산업구조 및 국제분업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93년 760만7000톤에서 96년 964만6000톤으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1233만1000톤, 2005년 1498만1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증가율은 1996 ~ 2000년 6.3%에 불과하고, 2000 ~ 2005년 중에는 4.0%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hemicals나 신소재, 생물산업과 비교해서는 성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의 예를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장기비젼 수립과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근거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비젼이 전혀 없는 것도 객관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96년 29억7000만달러에서 2000년 31억6000만달러, 2005년에는 44억3000만달러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96년 13억4000만달러에서 2005년 31억달러로 연평균 9.7% 증가해 수출증가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부가화를 배제함은 물론 기초원료 및 소재의 해외생산 및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세계속의 비중도 93년 세계시장 점유율 7.8%(5위)에서 2005년 8.0%(5위)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생물산업은 93년 1.5%(7위)에서 2005년 5.8%(5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전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계는 통산부가 전망한 세계속의 위상과 현실의 신증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화학저널 1996/6/3>